2020년 12월 13일[제 40권 50호]

Two Wings 1500 Vision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자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행복나눔축제

	전통예배	1차 초청예배 오전 11:00	2차 초청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노피어 찬양단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고백과 헌신	간증 김미정 집사 특별순서 찬양 성도의 교제		간증 홍준선 형제 특별순서 Everything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누가복음 4장 18~19절 (신약 93) **진정한 해방과 자유** 설교 담임목사		요한복음 10장 10절 **빼앗긴 행복을 찾아**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축도 담임목사		봉헌 야곱의 축복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4:00

행복나눔축제

12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축제예배 정일숙 권사
젊은예배 고진희 간사
성탄예배 이성근 장로

[봉헌]

전통예배 박선희 정일숙
축제예배 박용수 조충식
이은숙 정기숙 한영자
젊은예배 옥임석 한상익

수요기도회 19:30

가정 예배

1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장미경 한미라

[축제예배]

서동협 정오영
김미정 김순매 최현순

오늘의 말씀

진정한 해방과 자유

[누가복음 4장 18~19절]

작은날개 목장나눔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1-11절]

W
WELCOME
환 영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시다.

W
WORD
말 씀

다음 중 가장 극한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것은?
- 무호흡 잠수 / 마라톤 / 트라이애슬론 / 계곡 급류타기 / 파쿠르 / 맨손 암벽 등반 / 히말라야 등반 / 오토바이 경주 / 다카르 랠리 / 스카이 다이빙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1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까?(2-3절)

2. 죄와 언제까지 대항해야 합니까?(4절) 징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7-8절) 징계의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11절)

3. 다음은 말씀에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골라 서로 나눕시다.
-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한다(1절)
-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1절)
-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2절)
- 예수님은 큰 기쁨을 기대하며 눈앞의 고난을 이겨내셨다(2절)
-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3절)
-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대항해야 한다(4절)
-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징계한다(8절)
- 징계를 받을 때는 괴롭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11절)
- 기타:

4.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정해보고 서로 나눈 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4) 축복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2)

- 두날개 8호 단기선교사 최민선 선교사 -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저를 왜 북방으로 부르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지, 혹시 선교사로 나가는 것조차 나의 욕심은 아닌지 의심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부르셨다, 선교지에 가면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의심한 제 모습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사소한 모든 것까지 맡겨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받기 힘든 존재였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메신저로 사용하겠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 4박 5일간의 36기 국내 합숙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선교가 왜 축복이고 사랑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모호한 계획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한다는 막연한 비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4박 5일동안 선교사의 자세, 선교사역의 동기와 목적, 방향성 그리고 두날개 선교는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한 번 더 무장되었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항공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북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북방의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먼저 가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풍성히 넘쳐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저의 삶을 변화시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북방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길 바라시며 복음을 전할 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단기선교사로의 1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 이 시대에 잘못된 가치를 품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제자삼는 세계비전에 사로잡혀 함께 보내는 선교로 동참해주시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먼저 제자삼는 세계비전의 본이 되어 달려가시는 영적 아비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칼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연평도 폭격 10주년을 맞이해서 대전 현충원에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역대 정권들이 북한에게 잘해보자고, 더 이상 대립하고 반목하지 말고 평화롭게 해보자고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북한은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을 쏟아 부어서 사상자를 내었고 사람 사는 주거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평화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B.C 700년 경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앗수르가 터질 댐처럼 위험으로 존재했으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 도를 가르치면 백성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며 산다」고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나라가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어 농사하는 것과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를 이념, 철학, 사상, 논리, 심지어 군대를 엄청나게 동원 했지만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오늘의 현실도 당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습을 칼, 낫을 창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칼과 창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정치인들도 모두 칼과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남쪽은 그에 버금갈 신무기를 도입하고 각종 무기를 개발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뿐인 분단국, 분단 된 뒤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5백 만명 이상이 죽고 1천 만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양쪽이 모두 칼과 창을 만들어 쌓아 놓고 있습니다. 평화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 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서 퍼져가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예언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

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어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를 물었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7~8)고 하셨습니다. 즉 진정으로 로마를 극복하고 넘어 설 수 있는 길은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대장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평화의 사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미워하던 로마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민족의 마음 밭을 갈아엎고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그 보습으로 이 민족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시대를 뒤집어 엎는 보습

전혀 쓸모없는 나를 보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시대와 이 민족의 마음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 이것이 금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악에 일조하고 불의와 퇴폐, 부패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대한 일을 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구실하지 못할 때 눈물 흘리시고 분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떤 자세를 맞이 할 것입니까?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가을사역을 위해서
- 전도된 새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한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어진 사역들 순조롭게 잘 감당케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박현숙 권사
- 목장식구인 김선 자매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면서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 이은숙 권사
- 목장 식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소서.

금주의 감사

- 부족한 자를 양육자로 세워주셔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위대한 비전, 제자삼는 세계비전에 사로잡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심에 감사합니다.

-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소서.

- 행복모임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과 기대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 아무나 갈 수 없는 선교에 불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건강하게 마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주 소식

1. 행복나눔축제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다음주부터 홈커밍데이(해피투게더)가 진행됩니다. 각 목장에서는 장결가족,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두날개 국제컨퍼런스가 2021년 1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등록은 12월 27일(주일)까지이고, 등록비는 2만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 : 양육훈련국 강미령 국장)

4. 2021 두날개 세이레 새벽기도회가 "눈을 들어 밝히 보라!"는 주제로 12월 28일(월)부터 2021년 1월 17일(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5. 다음주 축제예배 후에 연말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 1, 2월 셀라이프를 주문 받습니다. 다음주일까지 목자 또는 훈련국(담당 : 나승미 팀장)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5,000원 / 연간구독 30,000원)

7. 2021년 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3목장(박영자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4목장(임영미 목자)

3층 : 여성A-3목장(한미라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환영합니다

데니스 형제 (섬김이 : 진우성 형제)
백인준 형제 (섬김이 : 사공세진 형제)
이서영 자매 (섬김이 : 유한나 자매)
최지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형제)
NING 자매 (섬김이 : 이혜수 간사)
서엘준 형제 (섬김이 : 김태완 형제)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11시
절 은 예 배	주일 오후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주일 - 금 새벽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시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